

‘짜임, 죽(竹), 목(木)’ 특별기획전

한국전통문화전당 전주공예품전시관, 6월 5일까지 장인 작품 등 총 28점 만날 수 있어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전주공예품 전시관(이하 전시관)이 ‘짜임, 죽(竹), 목(木)’이라는 주제로 국립무형유산원·한국문화재단과 함께 내달 5일까지 전시관 명인명장관에서 기획전전을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소목의 짜맞춤과 채상의 역음에 담긴 장인의 섬세한 기술, 작품에 담긴 조형성에 주목해, 보다 자세히 소개하고자 기획됐다.

전시 작품은 국립무형유산원의 ‘전승공예품 은행제’의 작품들로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작품 뿐 아니라 전승교육사, 이수자의 작품을 포함해 총 28점이다.

이번 기획전에는 ▲소목장 소병진 장인의 전주단장 ▲채상장 서신정 장인의 오합채상 ▲소반장 (故)이인재 장인의 구족반 등 전통 공예기술을 가진 장인들의 작품이 전시 중이며, 한편에서는 아카이브 영상이 상영돼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자세히 엿볼 수 있도록 했다.

예부터 귀한 것을 담아 보관하는 함인 ‘채상’, 식기를 받치거나 음식을 나르는 용도로 사용한 ‘소반’, 빛이나 뒤편이 등 장신구를 넣어두는 소함인 ‘빛접’ 등의 작품에서는 선조들의 기술을 고스란히 이어온 장인들의 고민과 노력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김선태 원장은 “장인들의 지혜와 경험, 기술이 응축된 다양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각각의 작품이 가진 고유의 형태와 아름다움에 빠져보는 모처럼의 여유를 가져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전통문화전당 전주공예품전시관이 ‘짜임, 죽(竹), 목(木)’이라는 주제로 국립무형유산원·한국문화재단과 함께 내달 5일까지 전시관 명인명장관에서 기획전전을 진행한다.

한편, 유튜브 검색창에 ‘전주공예품전시관’ 또는 ‘짜임, 죽(竹), 목(木)’을 검색하면 온라인 전시 영상으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체험관에서는 채상을 활용한 공예 체험을 통해 장인의 작품에 사용된 기술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도록 준비돼 있다.

전주한옥마을에 위치한 전주공예품전시관 명인명장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관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공예품전시관(063-281-161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국민연극 ‘라이어 I’ 부안 온다

부안예술회관에서 27·28일 진행

부안군은 5월 기획전으로 국민연극 ‘라이어 I’을 다가오는 5월 27일 오후 7시 30분, 5월 28일 오후 3시 2회에 걸쳐 부안예술회관 2층 공연장 무대에 올린다.

연극 ‘라이어 I’은 영국의 인기 극작가 겸 연출가 레이 쿨리의 대표작으로 원제는 ‘Run for Your Wife’이며, 한국에서 1998년부터 현재까지 25년째 공연을 하는 국내 최장기간 오픈런을 기록한 공연으로 국민연극이라는 칭호를 얻은 공연이다.

연극은 워블던에 사는 메리와 스트리트햄에 사는 바버라, 사랑하는 두 여인을 두고 정확한 스케줄에 맞춰 바쁘게 생활하는 택시 운전사 존 스미스가 가벼운 강도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시작한 거짓말로 인해 벌어지는 하루동안의 기막힌 해프닝을 담은 작품이다.

이번 공연에는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에서 경찰서장 ‘최수룡’으로 주목받은 우리군 상서면 출신인 손강국 배우가 스타리 가드너로 특별 출연한다.

한편, 티켓예매는 티켓링크와 부안예술회



관에서 오는 5월 20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관람료는 전석 5,000원이다. 중학생 이상 관람이 가능하므로 학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신분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부안=김석진 기자

익산 백제왕궁박물관, 스마트 박물관으로 새 단장

스마트 기술 활용 백제왕궁 정원 재현

익산시 백제왕궁박물관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박물관으로 탈바꿈한다.

시는 약 1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오는 25일 백제왕궁박물관을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백제왕궁박물관은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개방형수장고 ▲가상체험관 ▲발굴체험실 5개의 공간과 교육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해 스마트함이 더해진 박물관으로 바뀌었다.

VR, 홀로그램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왕궁리유적과 유물을 설명하는 상설전시실과 과거 백제왕궁 정원 시설을 재현해 실제로 물이 흐르는 백제정원실은 어려운 유적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조성됐다.

특히 전북지역 최초로 신설된 개방형 수장고는 시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문화재의 보관 방법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교육공간으로 활용



백제왕궁박물관 가상체험관 로비



백제왕궁박물관 외부 휴게공간

될 전망이다.

또한 상설전시실에서 가상체험관으로 이동 구간의 전면 유리창은 답답한 마음을 열어주고, 용화산을 품은 왕궁리유적과 재석사지는 일상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힐링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물관 관계자는 “새롭게 단장한 박물관을 통해 익산의 백제왕궁을 쉽게 이해하고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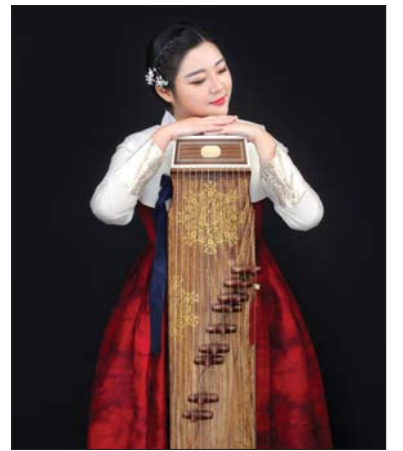
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백제왕궁박물관은 2008년에 개관한 왕궁리유적전시관으로 10여 년간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노후화된 시설을 단장하고 시민에게 백제왕궁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백제왕궁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연극배우 윤석화



가야금 연주자 서예지

국립민속국악원, 차와 이야기가 있는 국악콘서트 ‘다담’ 공연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지리산 소극장에서 차와 이야기가 있는 국악콘서트 ‘다담’ 공연에서 이야기 손님으로 연극계의 명품배우 윤석화가 출연해 ‘연극과 인생’을 주제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전했다.

공연에서는 광고 음악 가수로 활동하던 중 연극배우로 데뷔를 하게 된 이야기를 시작으로 영국 웨스트엔드에 진출해 공연제작자로 활동한 이야기, 한국 연극사의 중심에 있던 현대연극의 산실 극단 산울림에 대한 이야기 외 윤석

화의 화려하고 찬란한 순간들이 담긴 작품 영상을 함께 감상하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다.

우리음악 즐기기는 가야금 연주자 서예지가 출연해 〈인연〉, 〈도라지타령〉, 〈홀로아리랑〉, 〈희망가〉 등 대중들에게 친숙한 다양한 장르의 곡을 편곡해 들려준다. 가야금 연주자 서예지는 유튜브(YouTube) 플랫폼을 이용해 가야금의 대중화·세계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관람은 사전 예약제로 진행되며, 예약은 전화(063-620-2329)나 국립민속국악원 카카오톡 채널로 가능하다.

/남원=김기후 기자

기린미술관 개관5주년 기념

이흥재 초대전 (2관)

2022.4.1.(금) - 5.29.(일)












제22회 심흥재 개인전

2022.4.1.(금) - 5.29.(일)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4길 46, 기린오피스텔3층 관장 : 이현옥(010-8993-0147)